

5주차

외국어시험

이 경 숙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꺼삐딴 리의 세상살이

- 제국들 사이에서 꺼삐딴 리
- 해마다 영어공부 결심

02. 한문과 과거시험

- ‘天’ 글자는 검어서...

03. 일본어 시험

- 공용어 일본어
- 경성제국대학 입학시험

04. 영어시험

- 적성어 영어, 시험을 없애라
- 미군정, 통역정치의 권력
- 엘리트의 언어, 학술어 영어의 위상
- 대학입학시험
- 영어시험 시장의 확대

4차시 영어 시험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- 한국에서의 영어 시험이 어떤 위상을 갖는지 살펴보고 그 배경을 이해한다.

학습내용

- 적성어 영어, 시험을 없애라
- 미군정, 통역정치의 권력
- 엘리트의 언어, 학술어 영어의 위상
- 영어시험 시장의 확대

적성어 영어, 시험을 없애라

<조선일보> 1939. 7. 16.

적성어 영어시험을 배제하라

- “조선 내 전문학교, 대학 입학시험 영어과를 배제기로 결정”
- “현재 시험과목 중 영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천부당만부당”
- “중학에서는 선택과목으로, 전문학교와 대학에서는 필요한 외국어를 필요한 사람에게만 교수함이 적당”

1939년

적성어 영어시험 배제

- 조선 내 전문학교,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영어과 배제

영어의 지위 변화

- 1924년 경성제국대학 입학시험: 외국어 시험으로 인식
- 1925년: ‘영어’로 변경
- 1939년 7월: ‘영어’는 적성 국가의 언어 → 배제
- 1940년: 경성제국대학 입학시험에서 배제

조선 내 전문학교,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배제

중일전쟁 이후 일본, 영국, 미국과의 관계 냉각

- 일본 군국주의 세력

→ “영국과 서구, 혹은 영어에 빠져 있는 청년들과 지식인들”에 대한 강한 반감 표시 시작

- 1939년 조선에서도 排英국민대회, 排英동지회 결성

미군정, 통역정치와 권력

미군정기 영어, 공식 언어가 되다

미군정기 통역 정치 시대

미군정기 통역 정치 시대

- 영어를 잘하는 것 = 권력, 출세

영어 공용어 시기 일상의 문제들

- 1945년 군정 재판소
 - 판사 : “피고인은 죄가 있는가?”
 - 피고인 : 연신 허리를 굽히면서 “그저 죄송합니다”
- 미군정청, 금은거래 금지 포고문 -영어를 몰라 법적 분쟁 발생
- 영어를 아는 사람들의 농간(재산)

영어를 하는 사람들 고위 관료가 되다

- 보스턴대학 출신 이묘묵: 하지사령관 통역 후 주영국공사 등
- 컬럼비아 덴버대학 출신 황인식: 통역사 후 충남도지사 임명
- 컬럼비아대학 출신 조병옥: 통역사 후 군정청 경무부장
- 데이버대학 출신 이기붕: 미군정청 후 군정재판장의 통역관

2020년 기준 영어사용

- 약 12억 6,800만 명이 영어를 모국어, 제2언어로 사용
- 세계 195개국 중 67개국이 공용어로 사용
- 유엔 등 국제기구의 공식언어로 사용
- 전 세계 웹사이트 상위 1000만개 중 60.5% 영어

엘리트의 언어, 학술어 영어의 위상

2021년 미국대학 유학생 수

1위 중국 317,299명 (34.7%)

2위 인도 167,582명 (18.3%)

3위 한국 39,491명 (4.3%)

4위 캐나다 25,143명 (2.8%)

5위 사우디 아라비아 21,933명(2.4%)

미국무부 교육문화국+국제교육연구소 작성, <Open Door>보고서

지배받는 지배자

: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

- 권력층 자제들: 미국 학위 소지, 미국 이중국적자

영어교육 신화

- 빠를수록 좋다
 - “아동의 뇌는 3-4살에 다 자란다.”
 - 영어유치원의 급성장

영어교육 신화

- 영어, ‘원어민’처럼 해야 한다
 - ‘미국식 영어처럼 해야 한다’
 -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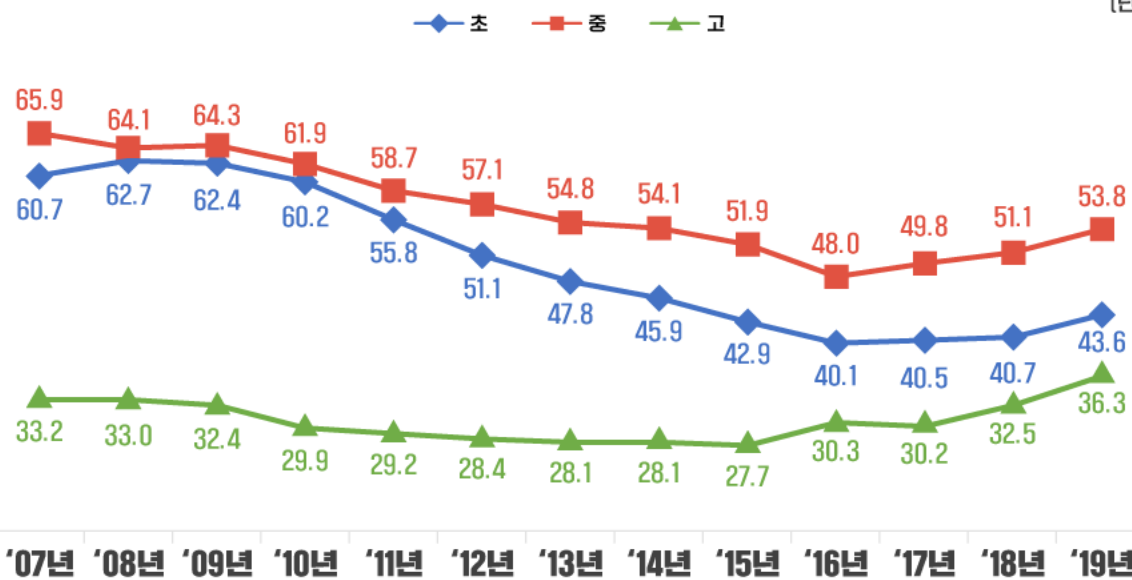
대학입학시험

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

- 1989년: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인가
- 1993년 8월: 1994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작
- 2000년대 초반: 영어특기자 전형(2015학년도 이래 축소)
- 2015년 공인어학시험 생활기록부 기재 금지
- 2018학년도 수능: 영어 절대평가 도입

학교급별 영어 사교육 참여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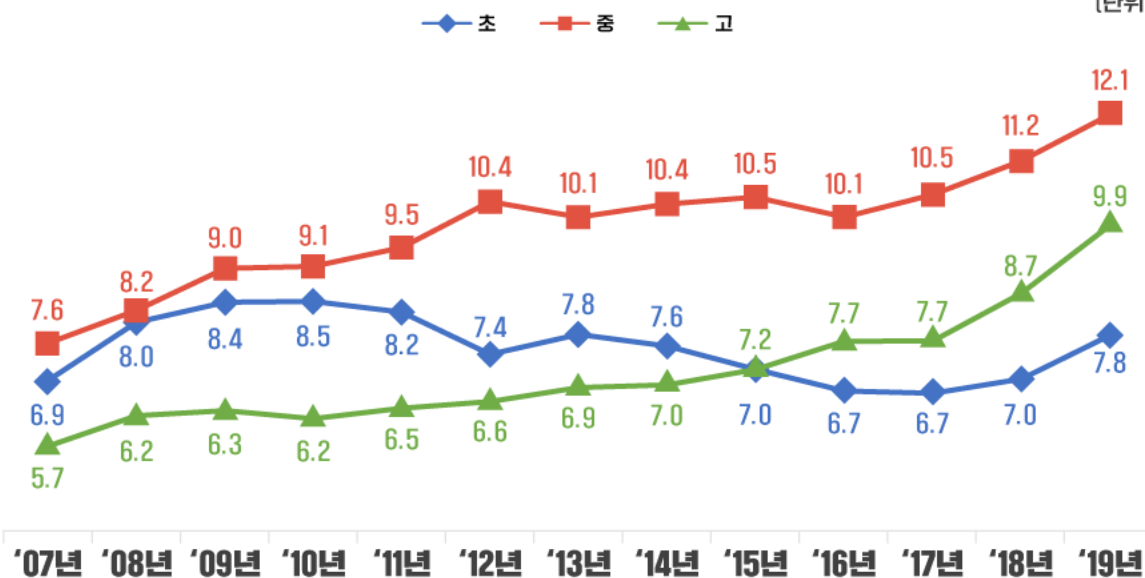
[단위 : %]



자료 제공 = 교육부

학교급별 영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

(단위 : 만원)



초, 중, 고등학생 영어 사교육비

■ 연간 4조 4,460억 지출

한국의 영어시험 시장 확대

- 2000년대 초반 대학교 입학에 특기자전형영어성적 우수자
... 영어공인검정시험 응시자가 대폭 증가
- 2005년 최소 50만명의 학생이 응시(10명 중 1명이 응시), 영어시험 응시료 1백억
- 학원, 참고서, 과외, 온라인 콘텐츠 등 영어시장 최소 1천억

2013년 ‘까만 머리 외국인’의 부정입학사건

-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
가짜 외국 국적, 여권, 가짜 학교경력 등
- 2013년 추가적발 된 경우만 163명

영어시험 시장의 확대

공인영어능력검정 시장의 성장

- 1982년 1월: TOEIC 국내 첫 실시(84명)
- 1999년: TEPS(서울대 개발) / 2010년: 40만 명 응시 / 2021년: 6만 명 응시
- 2004년: 사법고시 영어시험 대신 공인영어성적 도입
- 2006년: TOEIC, TOFLE 약 269만명 응시, 약 1천억 수익
- 2010년: 전세계 토익 응시자 600만명(한국인 211만 명)
- 2017년, 2021년: 공무원 채용 시 영어시험 공인능력성적으로 대체

2020년 영화

<삼진그룹 영어토익반>

- 배경: 1995년
- 고등학교 졸업 여사원들,
영어토익 600점을 넘기면 승진

TOEIC 응시

- 2015년: 600만 명 → 2019년: 1,400만 명 이상
- 일본, 한국, 대만, 베트남,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의 응시자 多
- 한국 응시자: 2019년 150만 명

마무리

- 외국어능력,

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는 세상에서

외국어 학습이란 ?

강준만, 『한국인과 영어』, 인물과사상사, 2014.

김기협, “60년 전에도 영어가 권력이었다.” 프레시안 2012.5.7.

김자중, 「제2차 조선교육령기 조선의 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의 성격: 조선과 일본, 관학과 사학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」, 한국교육학연구, 27(3), 2021, pp.41-68.

김종영, 『지배받는 지배자: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』, 돌베개, 2015.

박소영, 「미군정기 통역정치: 이묘목을 중심으로」, 통번역학연구 23(2), pp.93-116.

송인선, 「해방/패전 체험과 미(美·米)점령기의 ‘영어’ 이야기 - 염상섭과 고지마 노부오의 소설을 중심으로」, 비교문학 64, 2014, pp.85-110.

이경숙, 『시험국민의 탄생』, 푸른역사, 2017.

장향실, 「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」, 국제한국어교육 4(1), 2018, pp.1-22.

전광용, 『꺼삐딴 리』, 1962.

황호덕, 「해방과 개념, 맹세하는 육체의 언어들 - 미군정기 한국의 언어정치학, 영문학도 시인들과 신어사전을 중심으로」, 대동문화연구 85, pp.91-131.

REFERENCE

조선왕조실록 <https://sillok.history.go.kr/main/main.do>

승정원일기 <https://sjw.history.go.kr/main.do>

감독 이종필, (영화) 삼진그룹 영어토익반, 2020년 제작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

기획·조정

이준희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